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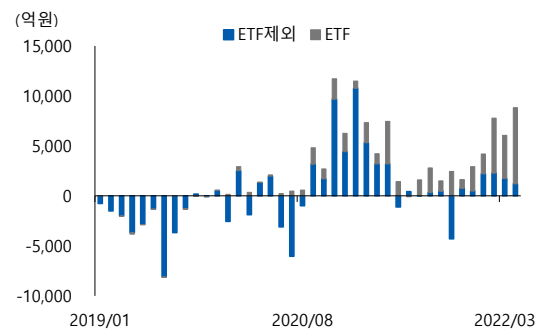


## 4월의 펀드시장

## 1. 반대로 가는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

- 글로벌 주식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달러 강세로 외국인 수급도 불안한 상황
- 국내주식펀드는 올해 들어서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해외 주식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 주로 미국주식펀드와 중국주식펀드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도, 해외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규모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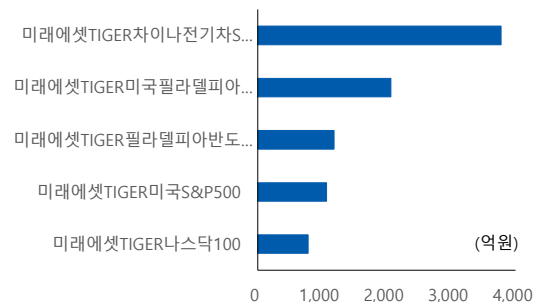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자금 유입 상위 펀드의 특징

- 4월 국내주식펀드 자금 유입 상위펀드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ETF의 비중이 높음
- 해외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상위펀드는 여전히 기술주 중심. 중국의 2차 전지와 미국과 반도체 관련 ETF로 자금 유입 증가
-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이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해외주식펀드로는 저가매수로 대응하고 있음

4월 해외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상위 펀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반대로 가는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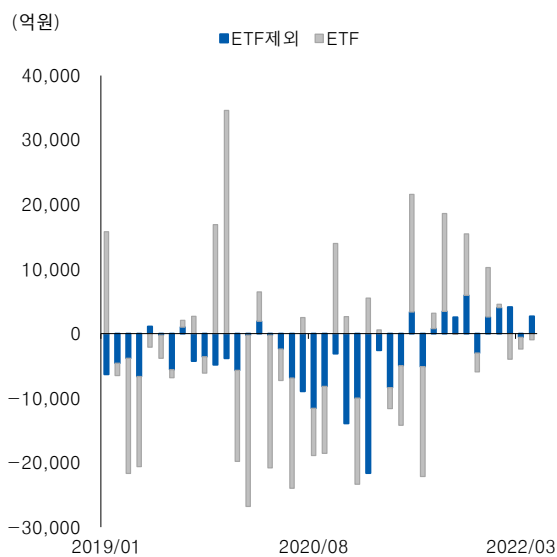
갈수록 심화되는 인플레이션과 빅스텝을 앞둔 5월 연준으로 시장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달리 강세로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22년은 투자자들에게 쌓아왔던 신뢰가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투자가 늘어나던 국내주식펀드는 올해 들어서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 유출입 규모의 변동성이 컸던 국내주식ETF도 유입 규모와 유출 규모의 편차가 작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만 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펀드는 월간 3000~6000억원 규모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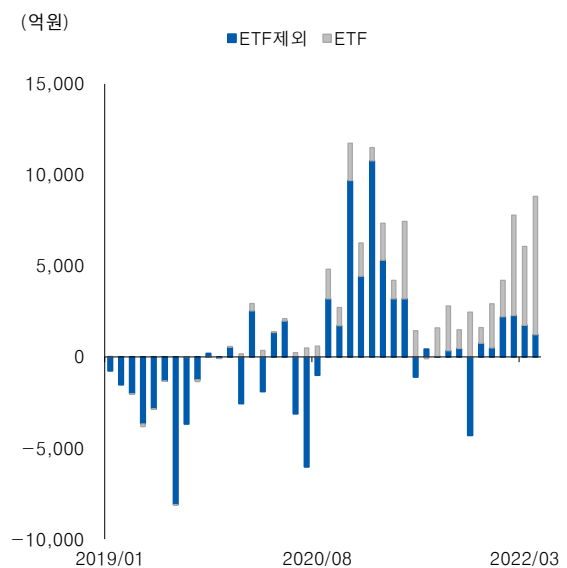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연초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과 중국주식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는 감소 추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도, 해외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규모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자금 유입 상위펀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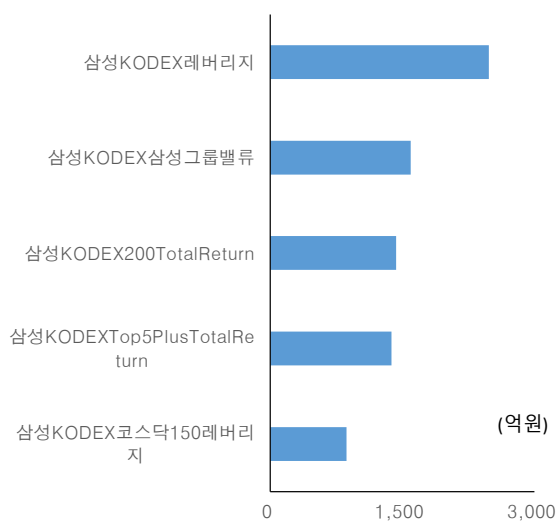
4월 국내주식펀드 자금 유입 상위펀드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ETF의 비중이 높다. KOSPI와 코스닥의 레버리지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상위펀드는 여전히 기술주 펀드 중심이다. 해외주식 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 '미래에셋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등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

해외주식펀드 중에서는 소재섹터와 브라질주식 등의 성과가 좋았지만, 소재섹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중국주식과 북미주식의 성과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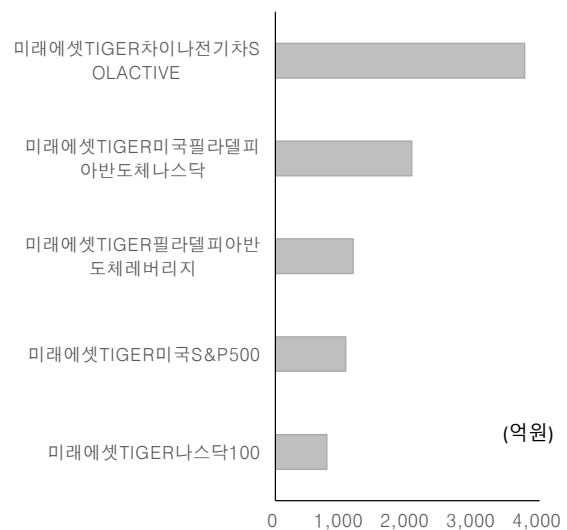
국내주식펀드는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의 액티브ETF가 작년 하반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성과가 부진해지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국내주식펀드보다는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차트3] 4월 국내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상위펀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4월 해외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상위펀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